주말경제

Economy

■자산이 거의 없는 30대 맞벌이, 종합적 재무설계는…

주식형 펀드 가입 집장만 대비하라

Q 30대 후반으로 광주 하남산단의 중소업체에 다니는 김○○입니다. 아내와 맞벌이를 하고 있고 9살배기 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부부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산이 거의 없지만 내집을 마련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종합적인 재무설계를 부탁합니다.

A 김씨는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이 130만원으로 연령 및 소득수준에 비해 재정적 준비 상태가 무척 열악한 상황이다. 아마도 과거에 재무적으로 어떤 어려운 경험을 한 듯 하다.

어려운 경험이 무엇이든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교육과 주택마련, 장기적으로 노후에 대한 대비까지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소비성 지출 축소가 급선무**=자산형성에 있어 남들보다 훨씬 늦은만큼 무엇보다도 소비성 지출을 줄이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어야 한다. 소비성 지출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급여중에서 먼저 일정금액을 저축하고 나머지를 쪼개고 아껴서 소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가계부 쓰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

다행히 자녀가 하나뿐이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교육비도 적게 들것이고, 3인 가족이라 계획적으로 소비한다면 생활비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럴때 소비를 줄여 저축하지 않으면 재테크의 종자돈인 목돈을 마련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보다는 지출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과하다 싶을만큼 저축과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급여가 많은 사람이 저축을 많이 할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연봉이 많으면 많은만큼 더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이 많은 경우 보다는 적은 소득으로 알뜰하게 모아 거액의 자금을 만드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다.

◇**내 집 마련은 서두르지 마라**=김씨에겐 1천600만원의 빚이 있다. 매월 40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덥석 아파트를 청약한다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무리다. 광주지역 아파트는 다분히 과잉공급 상태에 처해있다. 최근 몇 년간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상승했으나 지금은 보합상태이며, 오히려 하락추세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주택마련 계획(5년 이상)을 세우고 새 아파트 보다는 가족들의 공동생활권에 위치한 저렴한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해 리모델링 하는 방법을 권하고 싶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적립식 주식형 펀드를 5년 이상 넣어 그 자금으로 주택마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노후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김씨 부부의 경우 현재 노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적은 금액으로라도 시작해야 한다.

분산투자·장기투자·정기투자라는 연금투자의 3대 원칙에 적합한 상품은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이다. 노후에 대한 대비라고 하면 변액연금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연금은 적은 금액이지만 지속적으로 납부 할 것을 권한다. 최근 연금기금법의 개정으로 인해 연금수급률이 60%에서 40%로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한다. 국민연금 무용론도 나오고 있지만 연금소득은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국가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연금보다 훨씬 우수한 지급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기보험으로 가장 유고시 대비**=보험은 소득규모에 비해 가족에게 고르게 분산돼 있다. 하지만 가장 유고시에 대비한 추가 보장이 필요하다.

통상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하지만 김씨의 재정상태로 보면 다소 무리가 따르므로 저렴한 정기보험을 권하고 싶다. 정기보험이란 각종 위험에 대한 보장은 같지만 종신토록 보장해주는 종신보험과 달리 보장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다르다.

만약 60세로 보장만기를 설정하면 60세까지만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고 소멸된다. 주로 순수 보장성 보험이 많고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가장의 활동기에 집중적으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가장인 김씨의 유고시를 대비한 꼭 필요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정리=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자산없는 김씨

변경전 재무상태표

자 산		부 채	
예적금	300만원	대출금	1,600만원
주식형펀드	330만원		
주택임차보증금	1,100만원		
계	1,730만원	계	1,600만원
순자산 130만원			

변경전 현금 흐름표

수 입		지 출	
근로소득	330만원	생활비	124만원
		교육비	30만원
		보장성보험료	29만원
		대출금상환	40만원
		적립식펀드	80만원
		누수지출	27만원
계	330만원	계	330만원

변경후 재무상태표

자 산		부 채	
예적금	300만원	대출금	1,600만원
주식형펀드	330만원		
주택임차보증금	1,100만원		
계	1,730만원	계	1,600만원
순자산 130만원			

변경후 현금 흐름표

수 입		지 출	
근로소득	330만원	생활비	124만원
		교육비	30만원
		보장성보험료	36만원
		대출금상환	40만원
		적립식펀드	50만원
		변액연금	50만원
계	330만원	계	330만원

어려워도 노후대비는 필수
家長 위험대비 정기보험 꼭
소비지출 최대한 억제해야

강원복CFP (하나은행)

조윤형CFP (대한생명)

〈이번주 재테크 자문단〉

◇이번주 상담자 : 강원복CFP(하나은행), 조윤형CFP(대한생명)
◇재산리모델링 신청방법(신청시 연락처 기재)
▲이메일을 통한 신청방법 : chy69016@naver.com, bungy@kwangju.co.kr
▲팩스를 통한 신청방법 : 062)524-4187, 062)222-4918
▲'다음카페'를 통한 신청방법 : www.cafe.daum.net/fp-forum(광주FP포럼)

정기보험 3選

정기보험은 종신보험같은 혜택을 누리면서 보험료가 싼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이 많지않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농협생명에서 출시한 '무배당 농협고객 삼천만인 보장공제'는 30대 후반 고객들의 주목을 끌면서 올해 상반기 히트상품으로 선정됐다.

주계약 1억원에 특약당 각 1천만원 보장, 65세 만기, 20년 납입으로 30세 남자가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종신보험료의 절반수준인 월 8만5천원이다.

금호생명의 '무배당 가족애 소득보장 DC보험'은 가장 유고시 가장이 월급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험금을 매달 지급하는 상품이다.

60세를 만기로 남자가 보험금 1억원 상품에 가입했다면 월 보험료는 환급형이 4만5천원, 순수형은 3만원이다.

교보생명의 '교보정기보험'은 10년, 20년, 30년 등 가장의 경제적 활동기만큼 보장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 이 기간동안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족을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지킬수 있다. /장필수기자 bungy@

'생명보험료 절약 10계명'

똑같은 보장을 받는데도 보험료를 더 내는 것처럼 비경제적인 일은 없다. 예를 들어 20년 만기 암보험에 가입할 때 월 4천원 가량 보험료가 차이가 난다면(연간 이자율 4.5% 복리로 계산) 20년간 146만원이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인터넷보험 서비스회사인 '인슈넷'은 13일 생명보험료를 절약하는 10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중복보장 피하기
유행보다 실리를
보험료 일시납입

1. **맞춤설계로 중복보장을 피하라**=보험상담 때 본인이 이미 가입된 보험상품과 중복 보장되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따진다.

2. **'상령일'을 넘기지 마라**=상령일이란 보험사가 정한 보험적용 연령을 말한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전후 6개월을 동일연령으로 본다. 상령일이 지나면 가입자의 보험연령이 변경돼 보험료가 올라간다.

3. **유행보다 실리를 추구하라**=상속이 아니라 경제적 안정과 자녀 교육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다면 종신보험 대신 정기보험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4. **우대할인 상품을 찾아라**=보험사별로 적게는 1%에서 많게는 8%까지 할인율이 차이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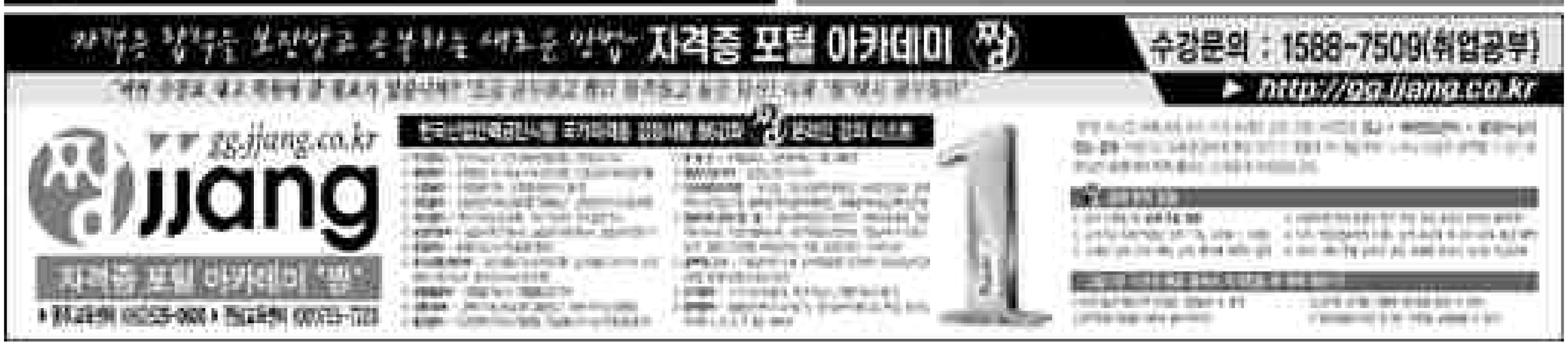
5. **건강상태가 좋을 때 가입하라**=담배를 피우지 않고 혈압이나 비만지수가 정상이라면 건강체 조건으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더 낮춘다.

6. **보험료를 일시납입하라**=일시에 내면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7. **환급률이 100%인 상품을 선택하라**=보통 환급률이 100%인 상품의 월납 보험료가 1만원이라면 환급률이 70%인 상품의 월납 보험료는 7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환급률이 70%인 상품의 실제 보험료는 7천원을 훌쩍 넘는다.

8. **'갱신특약' 상품을 피하라**=일부 암보험이나 건강보험은 가입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보험사가 새로 정한 '갱신특약' 보험료를 내야만 유효하다. 생명보험은 대개 연령이 오를수록 비싸지기 때문에 갱신특약 보험료도 올라가게 된다.

9. **자동이체를 이용하라**=일부 생보사는 보험료를 은행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도록 약정하면 1% 가량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10. **비교견적으로 보험료가 싼 보험사를 찾아라**=보험사별로 보험료가 차이 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업비다. 보험사 직원의 급여·광고비·설계사 수당이 보험료의 차이에 큰 영향을 준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